

1963년 여름의 일이었다. 나는 英國 런던대학교(임페리얼대학)에서 1년간의 연구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美国本土와 하와이를 방문하였다. 하와이에 들린 것은 太平洋 한복판에 자리잡은 와이키키 비취에서 海水浴을 하면서 하루를 즐기자는 것보다는 地質學的으로 흥미 있는 火山島를 보기 위함이 主되는 목적이었다고나 할까?

하와이群島는 大小 20여개의 火山島로 되어 있는데 살아있는 진짜 火山을 불려면 하와이島로 가야한다. 그 유명한 관광도시인 호놀룰루는 오후우에 있는데 이섬과 하와이島와는 약 400km나 서로 떨어져 있다. 하와이島는 20여개나 되는 섬들 가운데서 가장 큰 섬이며 또 同群島의 最南東端에 위치하는 섬이기도 하다. 이 섬에는 熔岩이 줄줄 흘러나오는 킬라우에 火山이 있으며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火山인 마우나 로아와 마우나 케아가 있다. 이 섬은 그 전체가 火山國立公園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섬에 갈려면 호놀룰루 國際空港에서 国内線 비행기로 갈아 타야만 한다. 나는 여행사에서 정해진 스케줄대로 하와이島로 갈려고 비행장에 나갔더니 공항은 人山人海를 이루고 있었다. 어찌된 것인가고 물었더니 모두 하와이島로 갈려는 관광객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空港職員이 하는 말이 “당신은 참 운수가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비행기표를 사지 못해서 이렇게 줄지어 기다린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재차 물었다. “아니 하와이島 관광이 그렇게도 인기가 있는가요”라고 했더니 그 사람 말이 그것이 아니고 바로 어제 20년만에 킬라우에 火山이 大爆發을 했다는 것이다.

火山爆發하면 여러가지 타입이 있는데 킬라우에 火山爆發과 같은 方式을 하와이式 火山爆發

이라고 한다. 폭발이라기 보다는 아마 噴火라고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폭발대신에 대규모적으로 熔岩이 줄줄 흘러나오는 식이다.

어찌되었건 나는 한시간만에 운 좋게 하와이島에 있는 힐로공항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 공항에는 킬라우에 火山觀測所의 직원이 마중나와 있었다. 이것은 내가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美国國立地質調査所에 들렀을때 그곳 副所長 맥키博士의 배려에 의한 것이다. 그 사람과 같이 공항을 나서니 이게 또 어찌된 일인가? 자동차

슬라이드 逢變

의 행렬이다. 觀測所職員말에 의하면 이 자동차 행렬이 킬라우에 火口에서 이곳까지 계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觀測所의 特權으로 행렬 옆으로 쉽게 頂上까지 올라 갈수가 있었다.

킬라우에 火山은 해발 1,247m나 되며 그 頂上部에 火山관측소가 있다. 우리가 火口에 접근하였을때는 한참 熔岩이 活動하고 있을때였다. 火口에서는 1천도가 넘는 빨간 熔岩이 죽끓듯 하였고 이것이 때로는 수백m 높이로 뛰어오르기도 하였다. 한마디로 장관이었다. 火口는 커다

란 熔岩湖水를 이루고 있었으며 한편 틈으로는 이 뜨거운 용암이 계곡으로 흘러 내려 그 끝은 바다로 들어가고 있었다. 빨간 熔岩이 바닷물에 들어가는 순간은 또한 볼만했다. 觀測所職員들은 위험을 무릎쓰고 항시 火口 가까이에서 熔岩의 溫度와 성분 기타 活動狀을 기록하고 있었다. 내가 그곳에 도착하였을때는 오후 3시경이었다. 일단 觀測所事務所로 돌아와 그사람들의 설명으로 시설등을 구경하고 직원들의 권유에 따라 야간광경을 보기 위하여 밤에 다시 현장

과 같이 찍는것이 어떠냐고 하면서 그 女性에게 권하는 것이 아닌가. 그랬더니 그 女性은 주저없이 “OK”다. 옆에와 포즈를 취하다가 어떻게 기분이 좋았는지 내 어깨에 자기 팔을 올려놓는 것이 아닌가. 所長은 “원더풀”을 연발하면서 샷터를 눌렀다. 내가 보기에 도 美國女性으로선 꽤 美人이었다.

1년만에 집에 돌아오니 가족들이 대 환영이었다. 몇일동안을 두고 이야기꽃이 피었다. 그러는 동안에 그간에 찍은 客地의 사진 슬라이드가 도착되었다. 저녁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得意의 슬라이드 쇼를 벌였다. 철거덕 철거덕 단추가 눌러져 슬라이드가 한장 한장 넘어 갈때마다 가족들의 박수갈채가 연발되었다. 드디어 하와이 光景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우선 機上에서 찍은 사진부터 火口의 熔岩湖 등등... 철거덕하는 순간 그 아릿다운 아가씨와 멋지게 어깨동무 스타일로 찍은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당황했다.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 슬라이드를 그대로 넘겨 버렸다. 와아. 하는 애들의 환성 뒤 끝에 마누라의 추상같은 명령이 떨어졌다. “지금 그 슬라이드 좀 더 구경합시다” 나는 아찔했다. 실은 아무罪도 없는데. 하는수없이 슬라이드는 되돌아 왔다. 구구한 변명의 여지도 없었다. 모든 분위기는 硬化되었다. 아내는 토라져서 계속 따지는 것이다. 나는 所長이야기로 부터..... 변명하느라 진땀을 뻘었다. 아내의 말은 그렇다면 왜 그 슬라이드만을 그대로 넘겨 버렸는가? 하는 것이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다. 나도 후회를 했다. 아마도 남자들 마음의 한편 귀퉁이에는 항상 아내에게대한 罪意識과 恐妻의 意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金 鳳 均 (서울대학교 教授)

에 나갔더니 그야말로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장관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觀測所 所長이 공항까지 바려다 준다기에 나는 차를 탔다. 所長에게 火口를 한번 더 보고 싶다고 하니 “노 푸라브림” 하면서 다시 나를 그곳으로 안내하였다. 실은 그 광경을 카메라에 담을 심산이었다. 愛用의 콘택스를 꺼내 사진을 찍으려 하였더니 所長이 자기 샷터를 눌러줄터이니 거기 서라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그때에 아릿다운 女性 한분이 火口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所長이 이왕이면 그 女性